2023년 3월 1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현대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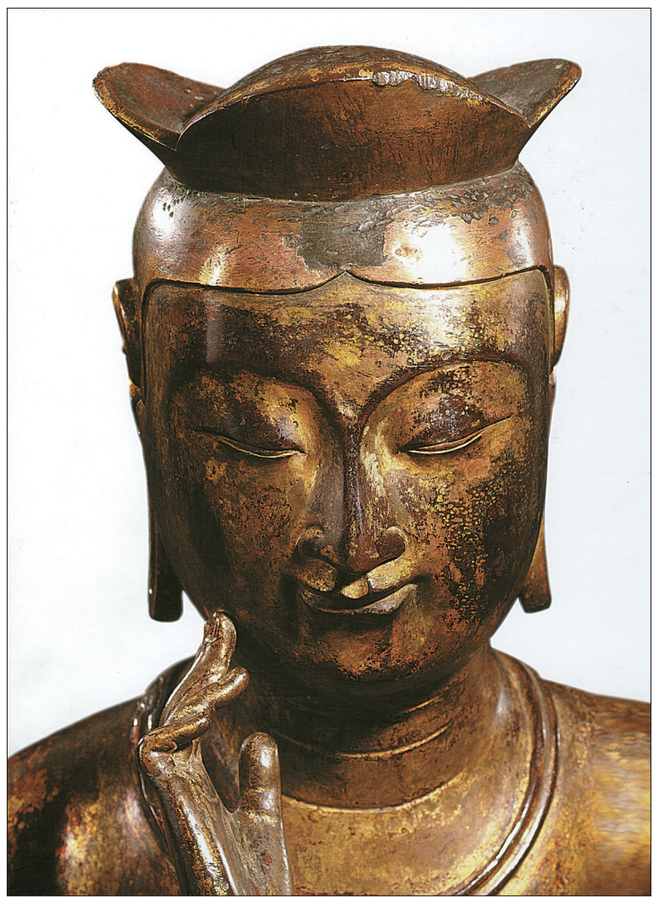
강소연 교수의 깨달음의 미학 ❹ 연화화생의 원리(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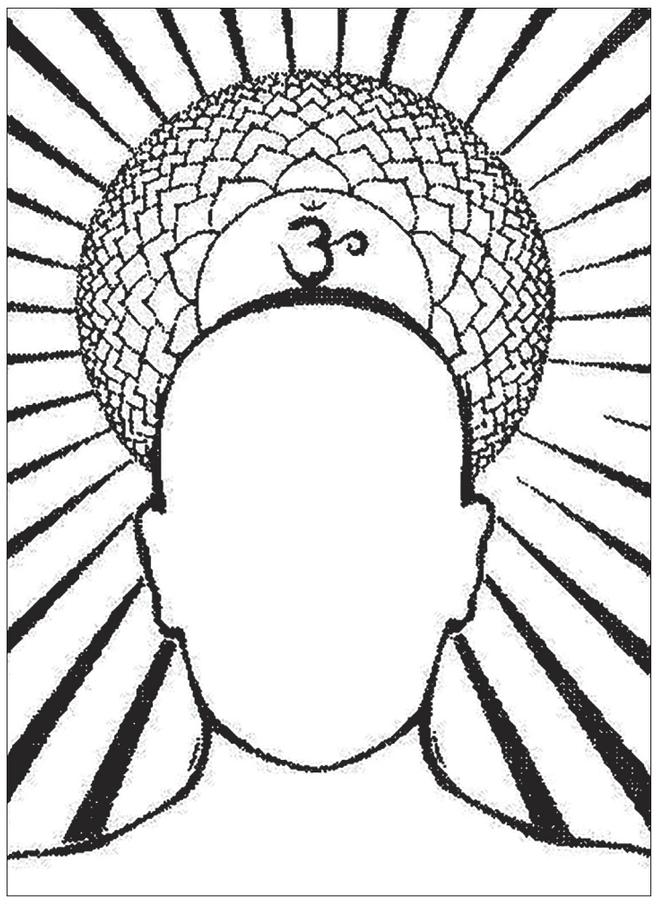
▶한줄요약
불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도상 중에 하나가 광배이다. 광배는 머리 뒤에 동그랗게 표현하는 두광(頭光)과 몸 전체에 표현하는 신광(身光)으로 나뉘는데, 특히 두광의 광배는 연꽃 모티프가 기본이 된다.

천 잎 연화대엔 1천 부처님이 계신다

극락왕생 또는 연화화생이란 '업장을 맑히고 새롭게 탄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무명(또는 업장)을 얼마만큼 맑혔나에 따라, 〈관무량수경〉에는 9품(9등급)으로 나뉘어 왕생한다. 이에 극락왕생을 9품 왕생이라도 한다. 업장을 맑힌 자리에는 깨달음이 드러난다. 청정해진 바탕에서는 청정한 에너지가 피어난다. 이것을 연꽃이 피어나는 것에 비유하기에 '연화화생'이라고도 한다. 시커먼 무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투명한 연꽃에서 태어났다는 말이다. 중생은 업장의 습(習, 되풀이하여 행하다)대로 세세생생 자궁에 들어가 태생(胎生)의 과정을 통해 태어나는 것을 무한반복하고 있다. '무명을 바탕으로 태생' 하는 '무명태생.' 그 반대말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화생' 하는 '연화화생'이다.



그림① 붓다의 머리에는 연꽃이 피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국보 '반가사유상' 부분.



그림② "연꽃이 만개하면 머리에 빛의 왕관을 형성한다" 깨달음의 연꽃이 열린 모습 도안.

마음의 정화 방법 '위빠사나'

석가모니 붓다는 기나긴 고행 수행 끝에 육체를 극심히 괴롭히는 것은 도에 이르는 길이 아님을 깨달았다. 해탈을 이루려면, 육체를 청정하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을 간파한 석가모니 붓다. 여기서 마음은 오염된 마음(업장 · 불선업 · 부정업 · 무명 · 무의식 · 말라식 등의 지칭도 가능하다)을 말한다. '사자후의 긴 경' (M.A.i.12)에는 붓다께서 언급하신 인간이 청정해지는 유일한 방법이 공개되어 있다. "어떤 이는 윤회에 의해 청정해진다고 하고, 어떤 이는 재생(再生)에 의해 청정해진다고 하고, 어떤 이는 머무는 곳(住處)에 의해 청정해진다고 하고, 어떤 이는 제사에 의해 청정해진다고 하고(후략)." 하지만, 청정해지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성스러운 통찰지'의 증득이다.

당시 알려진 모든 수행 방법을 철저히 이행해 보았으나, 결국 존재를 초월하는 법을 터득하지 못했던 붓다. 붓다는 마침내 붓다만의 방법을 발견하신다. "나는 참으로 그러한 행위와 그러한 도닦음과 그러한 고행으로도, 인간의 법을 초월하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와 견의 특별함을 증득하지 못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리고 붓다만이 유일하게 터득한 정답이 나온다. "그것은 성스러운 통찰지를 증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스러운 통찰지를 증득하면 성스러운 해탈로 인도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자는 바르게 괴로움의 멸진으로 인도한다." 여기서 말하는 성스러운 통찰지란 '위빠사나 통찰지(vipassanā-paññā)'를 말한다.

"위빠사나의 통찰지를 증득했기에 도의 통찰지를 증득했다. 이와 같이 내가 91겁 동안에는 위빠사나의 통찰지를 증득하지 못했기에, 출세간인 도의 통찰지를 증득하지 못했다.(MA.ii.51)" 위빠사나 통찰지, 붓다께서 91겁의 윤회 끝에 증득하신 비밀이다. 여기서 요즘 수행인들 사이에서는 '사마타(선정) 수행이냐' 또는 '위빠사나(통찰지) 수행이냐'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듯 오해가 있는데, 붓다께서 말씀하신 통찰지는 선정의 바탕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어느 하나만 가지고는 온건한 수행이 될 수 없다. 붓다가 제시한 수행과정이 '계(戒) · 정(定) · 혜(慧)'로 요약되는 만큼, 사마타(정)와 위빠사나(혜)는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는 보완관계라 할 수 있다.

천 잎 연꽃과 솔방울(송과체)

업장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유일한 해탈의 길이기에, 궁극의 불성을 '청정 법신'이라고 하고 또 거기에 이르는 길을 '청정도(淸淨道)'라 하고, 그 방법을 써놓은 경전을 〈청정도론〉이라고 한다. 업장을 청정하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 모습을 불교미술을 통해 살펴보자.

업장이 맑혀진 자리, 깨달음과 하나 된 자리에는 연꽃이 핀다. 이는 닫혀있던 의식이 열리는 모습이다. 마치 꽃봉오리가 열리는 모습과도 같다. 여기서 연꽃이란 실제 지구상 식물로서의 연꽃이 아니라 '깨달음의 꽃'을 말한다. 연꽃이 열리는 것과 깨달음이 열리는 것은, 물론 크기와 밀도 그리고 장엄의 수준에 있어서, 반딧불과 번갯불의 차이만큼 크겠다. 하지만, 중생의 세계 속에서 비견할 만한 것이 연꽃이다. 그 모양새에 있어 가장 유사하기에 연꽃은 불교의 꽃으로 채택되기에 이른다. 가톨릭교에서는 깨달음이 열리는 모양새를 솔방울(송과)에서 찾았다. 그래서 가톨릭의 센터인 "바티칸 중심부에는 예수나 마리아의 거대한 조각상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겠지만, 거대한 솔방울 모양의 상이 있다.(〈Inner Worlds, Outer Worlds〉)" 여러 겹의 꽃받침 또는 씨앗 받침이 중층으로 닫혀 있다가, 한꺼번에 벌어지는 모습이다. 다시 말해, 신성성이 열리는 모습을 동양문화에서는 연꽃에서, 서양문화에서는 솔방울에서 모티프를 빌려와 종교미술의 핵심 상징으로 삼았다.

> **"불상 필수 도상 중 하나가 광배 두광 광배, '연꽃 모티프'가 기본 반가사유상 불두에도 연꽃이 활짝 깨달음 봉우리 열리니 우주와 합일"**

서양학자들은 일찌감치 인간의 뇌 중앙에 있는 송과체(松果體: Pineal Gland, 솔방울샘 · 송과샘 · 송과선으로도 불림)에 주목했다. 머릿속의 작은 봉오리 모양의 이것이 마치 솔방울과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17세기의 유럽을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데카르트(Descartes)는 그의 첫 저서 〈인간에 관한 논문(Treatise of Man, 1637)〉와 마지막 저서 〈정념론(The Passions of the Soul, 1649)〉에서 송과체에 대해 언급하며, 이 부위를 "영혼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principal seat of the soul)"라고 명명했다. 송과체는 신성한 에너지의 매체로서, 그 신비한 작용으로 인해, 형이상학적이며 초자연적인 이론들과 함께 '불가사의한 분비샘'으로 간주되었다. 해부학 · 심리학 · 철학 · 종교학 등의 분야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대상으로 연구되었다.

연꽃이 만개하는 모습 '다메크 스투파'

최초의 연꽃 미술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 붓다 초전법륜지로 유명한 인도 사르나트에는 거대한 조형물 '다메크 스투파'가 있다. 초기불교미술을 대표하는 불탑으로 무려 34m의 높이를 자랑한다. 붓다가 최초로 설법한 장소에서 우리는 초대형 연꽃을 만날 수 있다. '다메크 스투파'의 거대한 원형 기단에는 연꽃잎 8개가 둘러 있는데, 연꽃이 만개한 형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로 원형의 기둥이 솟아있다. 멀리서 보면 초대형 연꽃이 열리고 거기에서 빛이 분출하는 모습이다.

"그 순간에 범천의 세상에 이르기까지 그 소리는 퍼져나갔다. 그리고 이 만 개의 세계는 강하게 흔들렸고 요동쳤다. 측량할 수 없는 광휘로운 빛이 나타났으니 그것은 신들의 광채를 능가했다.(〈초전법륜경〉)" 깨달음의 순간을 기술한 대목을 보면, 어머어마한 진동과 빛의 분출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총 7개의 차크라(존재를 만들고 유지하는 에너지가 모이는 중심점) 중 궁극의 제7차크라(백회 차크라)가 열릴 때는 나머지 6개의 차크라가 모두 용해되면서, 최고의 진동수의 파장이 일어난다"고 한다. 즉, 깨달음의 꽃이 열릴 때는 무량한 파장과 무량한 빛이 나타난다. 이것을 조형화한 것이 '다메크 스투파'인데, 닫혀있던 봉오리가 열려 연꽃이 피고 그 가운데에서 '측량할 수 없는 광휘로운 빛'이 솟구치는 모습이다. 빛의 원통 기둥은 지금은 많이 허물어졌지만, 7세기에 이곳을 방문했던 현장 법사의 기록에 따르면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아 있다"고 한다.

반가사유상 머리에 핀 연꽃

우리가 익히 아는 '반가사유상' (삼국시대, 국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①). 사유하는 젊은 붓다의 머리위에는 연꽃이 활짝 피었다. 깨달음의 봉우리가 열린 것이다. 세세생생 닫혀있던 봉오리가 열려 우주의식과 합일하는 순간이다. 연꽃잎은 한 겹, 여러 겹, 천 겹 등 근기에 따라 겹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그 규모도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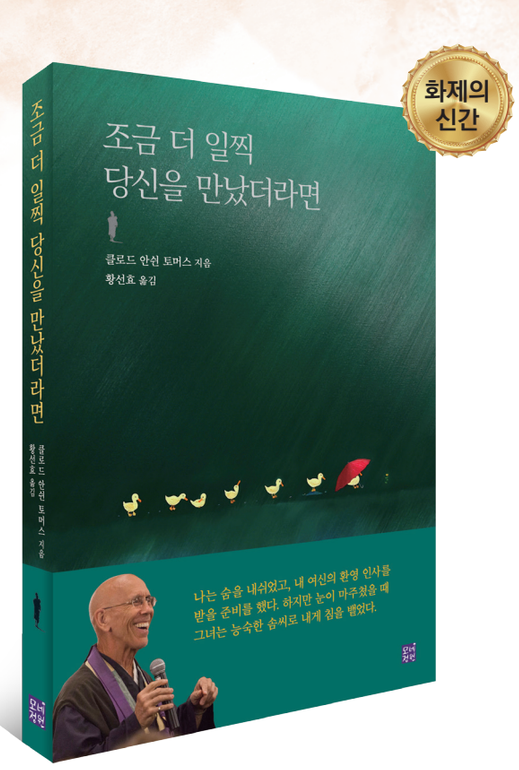
〈화엄경〉과 〈범망경〉에서 누차 언급되는 "천 잎의 연화대"라고 들어보았을 것이다. "연화장세계는 커다란 연꽃이 피어 있듯/ 천 잎의 연화대는 천 잎이 각각 한 세계가 되고/ 그곳에 화현한 일천 석가모니불이 계시다.(〈범망경〉)" 불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도상 중에 하나가 광배이다. 광배는 머리 뒤에 동그랗게 표현하는 두광(頭光)과 몸 전체에 표현하는 신광(身光)으로 나뉘는데, 특히 두광의 광배는 연꽃 모티프가 기본이 된다.

"태초의 신성한 원리와의 합일성을 경험한다./ 우리의 개인적인 에너지 장은 우주와 하나가 된다./ 우리는 더 이상 인식 대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왕관 차크라가 완전하게 일깨워지면/ 우주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업은 끝나게 되고/ 그것은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발산하기 시작한다./ 하나의 연꽃이 만개하여, 말하자면, 머리 위에서 순수한 빛의 왕관을 형성한다.(샤릴라 샤라먼, 보도J. 베진스키)"

빛의 왕관은 연꽃의 보관으로, 연꽃의 광배로 구현된다. 이렇게 연꽃 왕관이 열리면, 스스로 빛을 발산하는 존재로 전환된다. 즉, 항상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구걸하는 거지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발산하는 왕의 자리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다.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화제의 신간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